1963. 3

가진의 영웅들

가진 수산 사업소 민청호 557호와 558호 저예망선 선원 아저씨들은 태풍 속에서 동지들과 배를 구원하는 영웅적 위훈을 세웠습니다.

고기 잡이로 먼 바다로 나갔던 민청호 558호는 갑자기 휘몰아쳐 온 태풍 속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558호선 아저씨들은 5일 동안이나 태풍과 파도에 밀려 나무'잎처럼 먼 바다로 떠 내려갔습니다. 이리하여 아저씨들에게는 생명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들은 침착하게 사나운 파도와 심한 추위를 이겨가며 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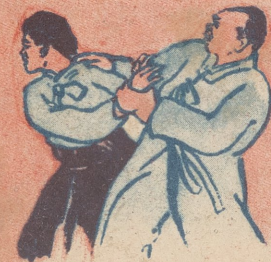
민청호 557호 저예망선 아저씨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558호 저예망선을 끝내 구원해 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지난 2월 16일 아저씨들의 이 영웅적인 행동을 높이 치하하여 편지를 보내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태풍 속에서 동지들과 배를 구원 함에 영웅적 위훈을 세운 민청호 557호의 무전수 김 근하, 선장 최 중길 부선장 홍 성일, 민청호 558호의 어로공 정 군빈 어로공 탁 명후 가진 수산 사업소 제1선단 선 담장 리 춘모 아저씨들과 조선 인민군 상위 김 한주 아저씨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하였습니다.

가진 수산 사업소 민청호 557호 성원들과 558호 성원들과의 상봉.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3호 내용

두번째 임무

—항일 투사 황 정해 선생의 아동단 시절 이야기 중에서—

아동단원 정해는 중국땅인 동북 훈춘현에서 태여나 조국땅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 황 병길은 젊어서부터 왜놈을 반대해 싸운 용감한 의병이였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 들자 그의 아버지는 동북 훈춘현 연통라자라는 곳으로 옮겨 가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독립군 대장으로 왜놈들을 반대해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였다.

아버지가 전사한 뒤에도 왜놈들은 그의 어머니를 일곱 번이나 잡아다 고문하였다. 그로하여 그의 어머니는 몸에 골병이 들어 끝내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원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왜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정해의 어린 가슴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1930년, 정해는 열 세 살 때 아동단에 입단하였다. 그는 아동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일제놈들에게 억울하게 죽었는가도 알게 되였다.

같은 또래의 동무들보다 주먹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정해는 새'별 같은 눈알을 반짝이며 아동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군 하였다.

아동단 생활은 어린 정해로 하여금 왜놈을 반대하고 조국을 찾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 혁명 투사로 자라게 했다.

한 번은 정해가 중강자라는 곳에 통신 련락을 가게 되였다. 추운 겨울날 혼자서 련락을 가던 정해는 도중에서 뜻하지 않게 부이멕이(왜놈의 앞잡이 만주국 지방 군대)라는 적들과 마주치게 되였다. 정해는 곧 발고랑 사이에 숨으려 했으나 그만 놈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섯!》 놈들은 멀리서 호통을 치며 추격해 왔다. 정해는 날쌔게 일어나 도망쳤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들려서는 안 된다…) 정해는 있는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였다. 목이 타고 숨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기를 쓰고 산'굽이를 돌아 갈림'길에 나섰다. (하나는 중강자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량수천자로 가는 길이였다.) 이때 정해의 머리에는 피뜩 묘한 생각이 스치고 지났다. 량수천자로 가는 길로 접어든 정해는

《동무들! 량수천자로 오라!》 하고 길옆 눈 우에다 손'가락으로 커다란 글씨를 써 놓았다.

그리고는 눈이 녹아 마른 발고랑을 따라 발을 가로 질러서 날쌔게 다시 중강자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눈 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 추격해 오면 적들은 길 옆에 써 놓은 글'자에 눈이 갔다. 《량수천자로 오라! 흥 요놈, 이제야 독 안에 든 쥐지!》 적들은 사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 길로 쏜살같이 달려 갔다.

적을 감쪽같이 딴 길로 보내 놓고 정해는 태연스럽게 중강자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정해의 열성과 지혜는 아동단 생활에서 늘 뛰여 났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직의 규률을 위반해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조직에서 맡은 일을 어겨 본 일도 없었다. 그는 아동단 생활을 잘 해야 빨리 공청원으로 되고 빨찌산 아저씨들처럼 손에 총을 쥐고 왜놈들과 싸울 수 있고 하루 속히 김 일성 원수님을 만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공청 지도부에 불리워 갔다. 지도를 펼쳐 놓고 살피던 지도원 선생님은 정해가 들어 가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입'가에 다정한 웃음을 짓고 그를 반가이 맞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정해의 거동을 살피는 것 같았다.

정해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지도원 선생님의 옆에 가 섰다.

지도원 선생님은 량손으로 정해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시며

《정해는 일본말을 잘 하지? 정해가 째해 낼가?》 하고 아래 우를 훑어 보시였다.

《선생님, 무슨 일이든지 맡겨 주십시오. 저는 총두 쏠 수 있습니다. 유격대에 넣어 주십시오.》

정해가 당돌하게 하는 말에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허허 공청원두 되기 전에 유격대가 되겠어!》 하고 기특하신듯 그의 어깨를 꾹 눌러 보셨다. 그리고는 《그럼 한 번 해 보지!》 하고 그에게 중요한 혁명 임무를 주시는 것이였다.

그것은 이곳 연통라자 빨찌산에서 멀리 영북으로 보내는 중요한 련락 임무였다.

마침내 보람찬 혁명 임무를 맡게 된 정해의 가슴은 기쁨과 자랑으로 울렁거렸다.

(거기는 일본 군대와 위만 군대가 거미줄처럼 늘어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데 째 뚫고 나갈가?…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 이것이 세상 떠난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 길이다.)

방에 돌아 온 정해는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정해는 칠성이라는 아이와 함께 영북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였다.

그들은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 대로 거지처럼 헌 옷차림을 했다. 그러나 신발은 지하족을 신었다. 그래야 먼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들은 만약의 일을 생각해서 길을 걷는 때도 낮에는 서로 얼마쯤씩 떨어져서 걸었다. 정해가 앞장 서면 칠성이가 글 쪽지를 간직했고 칠성이가 앞장 서면 정해가 간직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산'기슭의 풀섶에서 나무'잎을 긁어 모아다 무져 놓고 그 속에 들어 가 자군 하였다.

영북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질녘이였다. 그들은 동흥진으로 뻗은 신작로를 걷고 있었다. 정해가 앞장 서서 나즈막한 산 모서리를 돌아 섰다. 그는 너무도 뜻 밖의 일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글쎄 무장을 한 일본 군대 한 개 중대가 신작로를 맞받아 오고 있질 않겠는가! (그 때 왜놈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만 만나면 모조리 잡아 가는 판이였다.)

바로 놈들은 빨찌산을 《토벌》한다면서 부근에 있는 인민들의 부락을 습격하려 갔다가 헛탕치고 돌아 오는 길이였다.

(어떻게 한담, 도망을 치다가는 저놈들에게 붙들릴 건 뻔한데…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던가?)그가 주춤주춤 하는데 벌써 적들은 코 앞에까지 다가 오고 있었다. 이 때 고개를 숙이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의 앞에 떨어진 돌배알들이 눈에 띄였다. 그는 무의식중에 고개를 들고 쳐다 보았다. 바로 머리 우에는 돌배나무 가지에 돌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돌배나무에 바라 올랐다. 그리고는 돌배 하나를 따서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어느새 적들이 다가왔다.

《이놈아! 거기서 뭘 하느냐?》 삽시에 놈들은 총창을 빼들고 정해를 둘러 쌌다. 《썩 내려 오지 못할가!》

정해는 갑자기 겁에 질린듯 《으앙!》하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저놈을 끌어 내려!》

장교놈의 명령 대로 졸개 한 놈이 정해의 바지 가랭이를 사정 없이 잡아 당겼다. 그 바람에 툴렁 땅에 떨어진 정해는 더욱 큰 소리로 엄살을 하며 울어댔다.

《이 자식!》

육중한 장교놈의 손'바닥이 그의 뺨에 와 닿자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아야야! 난 배가 고파 그래요 엉엉.》 정해는 량볼을 감싸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더 큰 소리로 울어댔다. 그것은 뒤따라 오던 칠성이가 듣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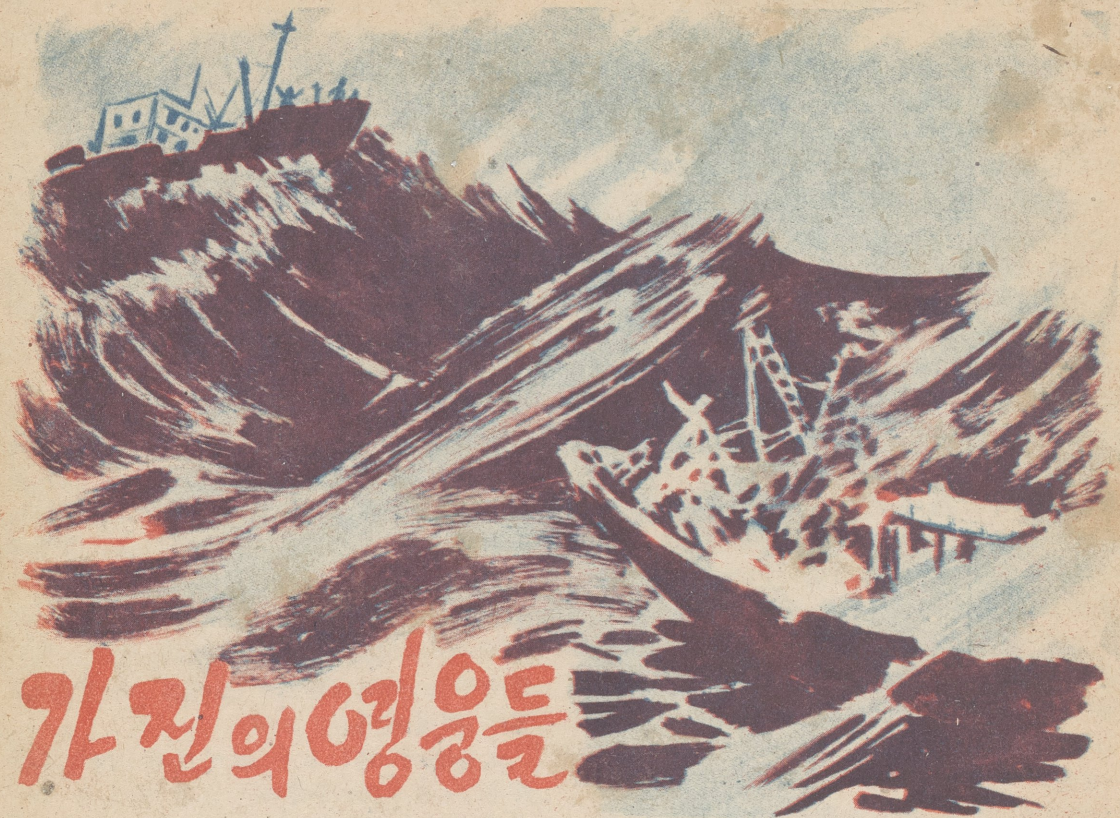
《이 새끼야, 너 빨찌산 련락 가지?》

《난 빨찌산이 뭔지 몰라요. 난 배가 고파요.》

《거짓말 말아, 배 고프면 실컷 먹여 줄테다, 가자!》

일본 군대 《오장》놈이 정해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리하여 정해는 그만 왜놈들에게 끌려 가게 되였다.

그러나 이 때 마침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칠성이는 날쌔게 숲 속으로 몸을 피해 무사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가진의 영웅들

정 홍 배

1962년이 바야흐로 저물어 가는 12월 29일 밤이였습니다.

이날 밤은 날씨도 좋았습니다. 하늘에는 뭇별들이 총총하였고 높지 않은 파도는 젊은 어로공들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수산물 80만 톤 고지 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 이제 남은 이틀 동안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내려고 가진 수산 사업소 민청호 저예망선 558 호의 아저씨들은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 12월 30일 0시 30분이 되였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뜻하지 않게도 태풍이 휩쓸어 왔습니다.

태풍은 초속 30 m의 속도로 휘몰아쳐 잠간 사이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기시작했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파도에 들리여 아찔하니 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순간 민청호 558 호는 추진기에 그물이 감겨 오도 가도 못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승을 부리는 파도는 더욱 더 높아졌고 민청호 558 호는 가랑'잎마냥 파도에 흔들리며 떠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실에서는 쉴 새 없이 삐-삐- 구원을 요구하는 무전이 날아 갔고 선장실과 선원실에서는 어떻게하면 그물을 벗길 수 있겠는가 토론이 거듭되였으나 신통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배는 계속 떠내려만 갔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

위험에 처한 민청호 558 호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은 모든 대책을 다 하였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내려 간 수산상 선생님의 지휘 하에 신포, 차호를 비롯한 수산 사업소들의 300 여 척의 큰 배들은 558 호를 찾아 떨쳐 나섰고 동해안의

모든 무전기들에서 558 호를 찾아 무전이 쉴 새 없이 날아 갔습니다. 인민군 항공 부대는 비행대를 동원하였고 해군 부대는 함대를 동원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 민청호 557 호는 태풍 속을 뚫고 간신히 고저항에 들어 섰습니다.

그러나 민청호 557 호선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뭍에 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18 명의 혁명 동지들이 파도에 시달리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근 20 시간을 태풍과 싸워 지친 몸이였으나 그들은 참아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57 호 선장실에서는 당 분세포 총회가 열리였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수상 동지의 교시를 학습하고 자나 깨나 손에서 회상기 책을 놓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어려운 때에 혁명 동지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로동당원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오직 붉은 실로 꿰인듯 선장실에 모인 당원들의 가슴가슴은 이 하나로 고동쳤습니다.

《가야 한다!》

《삶도 죽음도 같이하자!》 철석같은 당원들의 맹세, 이 맹세는 선원실에 모인 민청원들의 심장마다에도 다져졌습니다.

벌써 민청 위원장 황 석금 형님은 선장실에 뛰여 올라 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고 민청원 조기수 황 도상 형님은 참다 못해 기관실에 뛰여 들어 가 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전파를 따라

민청호 저예망선 557 호는 벌써 네 시간 남아 항행하였습니다.

558 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짐작이라도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닥 558 호선에서 보내 오는 무전을 방향삼고 어떤 때는 동쪽으로 어떤 때는 서쪽으로 배를 돌려 보았습니다.

이처럼 갈팡질팡 하면서 557 호 무전실에서는 계속 《558 호 어데 있는가?》 련달아 전파가 날아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 무전을 받은 558 호에서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맞받아 무전을 쳐왔으나 《여기》가 어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릴듯 말듯하게 들려 오던 558 호의 전파가 갑자기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순간 무전수인 민청원 김 근하 형님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면서 《찾았구나, 찾았어!》 환희에 넘쳐 웨쳤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혼자의 심정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한 순간 뿐이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앞을 가리우는 캄캄한 밤이여서 여전히 558 호를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 해 두 번이나 신호총을 쏘아 올렸습니다. 드디여 31일 새벽 2시 경에 557 호는 558 호를 찾아 냈습니다. 557 호는 558 호를 끌고 곧 항구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못 가서 뜻하지 않게도 558 호를 찼던 끌'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모진 추위 속에서 로쁘가 아니라 얼음'줄이 되고만 끌'줄이 배가 공중 떴다 떨어지는 파도 속에서 견디여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557 호는 잃어버린 558 호를 찾아 다시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557 호는 잃었던 558 호를 다시 찾아 냈습니다.

이때는 파도가 더욱 높아져서 558 호에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57 호의 아저씨들은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메터…두 메터… 558 호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0 메터 거리에까지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558 호의 어로공 김 로선 아저씨가 바'줄을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 별안간 돌개 바람이 몰아치더니 557 호가 파도 우에 공중 들리우고 558 호는 그만 파도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대로 557 호가 떨어지는 날이면 두 배는 서로 부딪쳐 산산 쪼각이 나고 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였습니다.

선단장 리 춘모 아저씨가 《키를 왼 쪽으로!》하고 잽싸게 웨쳤습니다. 선장은 안'간힘을 다 써서 키를 돌렸습니다.

이리하여 558 호 머리 우에 떨어지면 557 호는 방향을 바꾸어 558 호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 때 558 호의 탁 명후 아저씨는 머리 우에 떨어져 내려 오는 558 호를 두 손으로 밀었고 김 로선 아저씨는 잽싸게 바'줄을 557 호에 던졌습니다.

배는 살아나고 557 호는 다시 558 호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목숨을 내걸고 찼던 끌'줄도 얼마 못 가서 또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끌'줄이 끊어진 것만 하여도 네 번 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끊어져 나간 끌'줄이 557 호 추진기에 감기였습니다.

기관이 멎자 557 호의 무전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557 호마저 꼼짝을 못 하고 바람에 밀려 끝 없이 떠내려 갔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물로라도 가자!

12월 31일 밤은 깊어갔고 어느덧 1963 년이 다가 왔습니다.

태풍과 산 같은 파도에 밀려 끝 없이 떠내려 가는 속에서도 558 호의 아저씨들은 해마다 신년사를 듣는 그 때와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며 선원실에 겹겹히 둘러 앉았습니다.

지금 수상님께서 전국을 향해 신년사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아저씨들의 가슴

은 뜨겁게 울렁거리였습니다.

김 홍길 아저씨는 더 참을 수 없어 《아! 수상 동지의 신년사를 듣고 싶고나!》 하고 웨쳤습니다.

비록 입 밖에는 서로 내지 않았으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18 명의 선원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며 다시금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수상 동지! 당신의 아들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당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난관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 557 호의 선원실에서도 리춘모 아저씨가 작년 설 명절에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를 하여 선원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난관을 뚫고 말리라는 한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추진기에 감긴 바'줄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추진기에 줄이 감긴 채 하루'밤을 머나먼 바다로 떠내려 가던 557 호는 마침내 추진기에 감긴 바'줄을 풀어 버리고 또 다시 558 호를 찾아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로부터 2 시간 후 이미 훤히 밝은 먼 수평선 우에 558 호가 검은 점처럼 나타났습니다.

두 배는 다시 련결되였고 다시금 서북쪽을 향하여 배'머리를 돌리였습니다.

그 때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는지 557 호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관이 멎는 날이면 배는 또다시 강한 서북풍이 휘몰아치는 대로 떠내려 가야만 하였습니다.

이 때 557 호는 동해 지휘부와의 무전 련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사장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은 수산상 선생님은 저으기 놀랐습니다.

그것은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척의 배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산상 선생님은 다시금 송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상기를 더 읽으시오. 기름이 없으면 물로라도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시오…우리는 모든 힘을 다 해 동무들을 찾겠소. 끝까지 신심을 잃지 마오.》

이리하여 두 선박에서는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는 558 호에 있는 500 릿터의 기름을 옮겨 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항행은 계속 되였습니다.

1월 2일 아침, 갑판에서 갑자기 《비행기다!》 하는 함성이 올랐습니다.

련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 다니던 비행사 김 상현 아저씨가 조종하는 비행기의 은'빛 날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비행기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배 상공에 이르렀고 기수를 떨구며 급강하 하였습니다.

비행기와 두 선박 사이에는 전파가 오고 갔습니다.

《너의 집은 어데냐?》

《가진!…가진!》

비행사는 두 척의 선박 우를 몇 번이고 선회하면서 련속 은'빛 날개를 흔들어 보이였습니다.

비행기의 무전 신호를 받고 그 곳으로 달려 온 해군 함정들에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울었습니다.

비행사들도 울었고 해군 용사들도 울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 멀리 공해에서 두 선박을 찾고 있던 차호 수산 사업소 뜨랄 101 호와 신포 수산 사업소 만능선도 그들을 마중하려 달려 왔습니다.

1월 3일 오전 11시, 민청호 558 호와 557 호선이 신포항에 들어 섰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와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를 웨치며 바다와 싸워 이긴 가진의 영웅들을 환영하였습니다.

—평남도 개천군 청룡 중학교 단 제 5 분단 (모범 분단)에서—

본사 기자 조 병권 그림 윤 영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좋아하나

수업이 끝난 후 결석한 동무들의 집을 찾아 각 부락에 나갔던 분단 위원들이 다 돌아 왔는데 로전 부락에 나간 라 선균이만은 아직 돌아 오지 않았다.

본래 5 분단은 학교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분단이여서 다른 분단에 비해 결석하는 동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나선 후로는 출석률도 괜찮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7 명이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분단 위원들이 결석한 동무들의 집에 찾아 가서 알아 보기로 한 것이였다.

선균이는 퍽 늦어서야 맥없이 터벅터벅 돌아 왔다. 그는 제자리에 가서 책가방을 홀령 둘러 메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휙 나갔다. 《선균 동무,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분단 위원장 오 기선이가 그를 좇아 나가며 물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왜 그러니? 말 좀 하려마.》

《몰라!》

선균이는 벌칵 성을 냈다.

《넌 분단 위원이 아니가, 너까지 그러면 어떻거니.》

기선이가 안타까와 하는 말이였다. 그 때야 선균은 다시 교실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였다.

로전 부락으로 나가던 길에 선균이는 산'기슭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리 인국이와 그의 동무들을 만났다. 그들은 책가방이며 저고리를 무둑히 쌓아 골문을 만들어 놓고 공차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너희들 학교엔 오지 않구 이게 무슨 짓이가?》

《…》

《내 이야기할 게 있는데 좀 오려마.》

선균이는 그들을 모아 놓고 타일러 주려 했지만 그들은 비슬비슬 꽁무니를 뺐다. 선균이는 부아가 나서 그들이 차던 뽈을 빼앗아 들고 《학교에 나오기 전엔 안 줄 테야.》 하고 웨쳤다. 그러자 뺑소니 치던 인국이가 나는듯이 달려 오더니 《뭣이?! 뽈을 내놔.》

벽력 같이 웨치며 눈을 부릅뜨고 선균이의 코 앞에 주먹을 내밀었다.

《너희들이 학교에 나오기 전엔 못 내놓겠다.》

선균이도 성이 버럭 나서 한 발'자국 다

가 셨다. 순간 인국이의 억센 손아귀가 선균의 팔목을 잡아 비틀더니 뽈을 빼앗아 들고 달아나 버렸다.

선균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난 분단 위원들은 모두 격분해서 래일 당장 분단 총회를 열고 한 번 단단히 혼내워야 한다고 욱욱했다.

분단 위원들이 다 돌아 간 다음 기선이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다. 《오늘 선균 동무가 한 일은 잘 못한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단 위원들은 분단 동무들의 친한 동무가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들의 취미, 성격도 잘 알아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구 싶어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 맞게 우리의 사업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다. 집으로 돌아 온 기선이는 지난 날 분단 동무들의 생활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1 학기 초 어느 날이였다. 그 때도 인국이를 비롯한 로전 부락의 몇몇 아이들이 결석했다. 기선이는 그들을 찾아 떠났다. 그들은 마을 뒤'산에서 옥수수'단으로 미군 놈을 만들어 세워 놓고 군사 유희를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였을 때 인국이를 비롯한 5 명의 동무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피리를 만들어 준다는 인국의 꾀임에 들어 그를 따라 도망쳤던 것이다. (분단 동무들은 축구와 군사 유희 같은 씩씩한 체육을 좋아하고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명랑하고 유쾌하게 놀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분단에서는 이런 것을 얼마나 조직해 주었던가.)

이렇게 지난 날의 사업을 더듬어 보는 기선이에게는 뉘우쳐지는 점이 많았다.

기선이는 이튿날 분단 위원회를 열었다. 《동무들이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의논하자는 것이였다. 분단 위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 날 분단 위원회는 동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흥미 있는 사업을 계획했다.

활기 띤 분단

이튿날도 인국이와 그의 동무들은 나오지 않았다. 분단 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선균이는 다시 그들을 찾아 떠났다. 선균이는 로전 부락 민주 선전실 마당에서 뽈을 차고 있는 그들과 만났다. 아이들은 선균이를 보자 슬슬 흩어져 갔다.

인국이는 량 손을 허리에 얹고 볼멘 소리를 질렀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동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토론했다.

《왜 왔어? 또 뽈 빼앗으러 왔니?》

《아니야, 분단 위원회에서는 이번 일요일에 부락별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 알려 주려고 왔어. 이 뽈은 축구 련습을 하라고 분단에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야, 자 받어.》

선균이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께서 받아 가지고 온 축구뽈을 내밀었다. 인국이는 못 마땅한 얼굴로 선균이와 뽈을 번갈아 보더니

《우리들이 차라구? 이렇게 말이야.》

비양조로 한 마디 하고는 선균이가 내민 뽈을 발'길로 공중 높이 차던졌다. 뽈은 멀리 채소밭 가운데 가 떨어졌다. 먼발치에서 바라 보고 섰던 아이들은 모두 깔깔 웃어댔다. 선균이는 밸이 왈칵 났다. 당장에 멱살을 틀어 쥐고 한 대 갈기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꾹 참았다. (다시는 이런 애들과 맞서지 않을 테다) 분이 가라 앉지 않아 씨근거리며 뽈을 주으러 가던 선균에게는 오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

동무들은 저마다 인국이의 학습을 도와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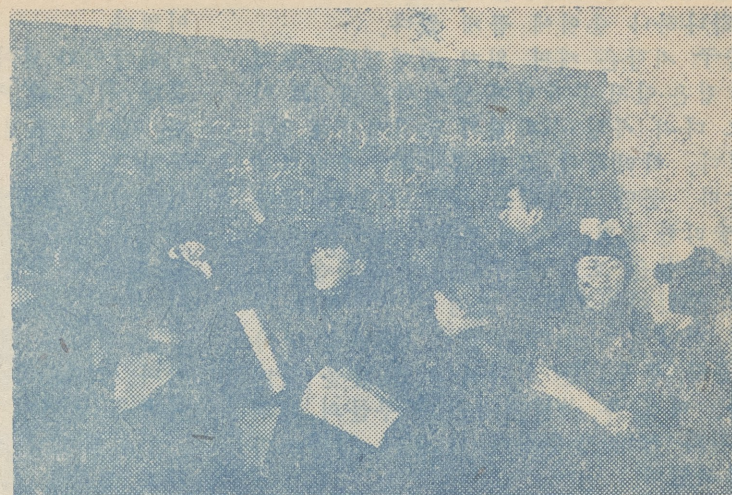
(선균이는 소년단 생활과 학습에 열성을 내도록 로전 부락의 동무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 진심으로 꾸준히 도와 주고 이끌어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분단 위원들은 동무들을 위해 이렇게 사업해야 합니다.)

선균이는 학교로 되돌아 가려던 생각을 뿌리치고 뽈을 집어 들고 명랑하게 웨쳤다.

《인국아, 내 찰게 받아라!》

선균이가 찬 뽈은 민주 선전실 마당으로 윙 날아 왔다. 흩어졌던 아이들이 민주 선전실 마당으로 욱 하니 모여 들었다. 《야, 멋 있는 뽈이구나.》 뽈은 아이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아 갔다.

《우리 한 번 편을 갈라 이 뽈루 축구해 보자.》

이리하여 이 날 선균이는 로전 부락 아이들 속에 휩쓸려 축구를 했다. 인국이와 한 편이 된 선균이는 뽈을 몰고 상대편 골문 앞에 가서는 인국에게 넘겨 주군 했다.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인국이도 선균이가 뽈을 잡으면 《선균아, 선균아, 여기 여기.》 하며 신이 나 했다. 축구가 끝난 다음 선균이는 분단에서 조직하는 축구 시합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게 정말이가?》 듣고 있던 인국이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정말이 아니구 언제 분단에서 거짓말 하던.》

《씨〈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던 모임 때는 체육두 하구, 등산, 행군, 견학두 조직하구, 악기 다루는 법두 배운다구 하더니 언제 한 번 그런 거 해 봤니.》

《그건 우리들이 잘 못했어. 그래서 이번 축구 시합을 조직한거야. 로전 부락에선 네가 책임지고 련습시켜라. 그리구 래일부터는 이런 좁은 마당에서 하지 말구 학교에 나와 운동장에서 진짜 련습을 하자!》

그 다음 날 인국이와 그의 동무들은 모두 학교에 나왔다. 다음날 분단 벽보에는 《승리는 어느 부락에!》라는 제목으로 각 부락에서 축구 시합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소식이 실렸다. 그리고 이번 축구 시합에서 로전 부락이 꼭 승리하겠다는 인국의 결의도 실려 있었다.

부락별 축구 시합을 이틀 앞둔 금요일이였다. 기선이는 공부가 끝나자'바람으로 거리'대산으로 올라 갔다. 동무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피리를 만들어서 시합에 참가하는 동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피리를 만들 딱나무를 한 짐 해 지고 땅거미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 왔다. 기선이는 이틀 밤을 새

워 가며 20여 개의 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종이에 곱게 쌌다.

축구 시합은 재미 있게 진행됐다. 로전 부락팀은 인천 부락팀과 맞서서 3 대 2로 이겼고 다시 사현 부락팀과 맞서서 2 대 1로 이겼다. 이리하여 로전 부락의 승리로써 끝났다. 분단 위원회는 축구 시합이 끝난 후 승리한 로전 부락팀 동무들과 축구 시합에서 모범을 보인 동무들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전체 동무들에게 피리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피리를 받아든 분단 동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며칠 후 분단에서는 동무들의 제의에 의해 피리 합주단과 가야금 병창조가 조직되였다.

분단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의 마음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더 많이 조직하기 위해 힘썼다. 일요일이면 연풍 저수지에서의 뽀트놀이도 조직했고 설구봉산으로의 행군, 군 내 공장, 협동 농장 견학 등 다채로운 사업들이 련'이어 조직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분단은 단결되여 갔다.

《오늘도 100%이구만.》

아침마다 출석을 긋고 나신 선생님은 만족한 웃음을 짓군 하셨다.

환 성

소년단원들이 분단 생활에 흥미를 갖고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분단이 하나로 뭉쳐지자 분단 위원회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분단 동무들이 학습을 잘 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에 달라 붙었다. 그리하여 분단의 위임에 의해 학습에 앞선 동무들이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나섰다. 1학기 말 성적증을 받던 날이였다.

인국이가 받아 든 성적증을 들여다 보던 분단 위원 리 창휘는 그만 맥이 탁 풀렸다. 분단 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한 학기 동안 인국이의 학습을 꾸준히 도왔는데도 인국이의 성적증에는 아직 3 점이 수두룩했었다. 다른 동무들은 모두 우등, 최우등을 했는데 인국이 하나 때문에 자기 분단이 우등, 최우등 분단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창휘의 마음은 몹시 괴로왔다. 그는 책상 우에 엎드려 흐느끼며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창휘에게 4 점 짜리라도 있어서 그러는가고 생각한 기선이는 그의 손에서 성적증을 뽑아 들었다. 모두 5 점이였다. 《창휘야, 왜 그러니…최우등인데.》

기선이는 영문을 몰라 이렇게 물었다.

《나만 최우등을 하면 뭘 해…난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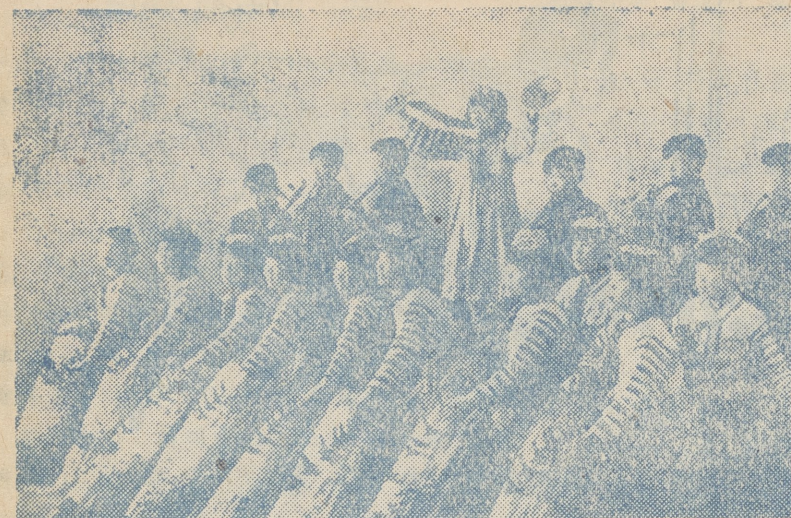
창휘는 더욱 흐느꼈다.

《뭘 말이니?》

《인국이는…》

그제서야 동무들은 창휘의 심정을 알아차렸다. 《괜찮아, 2 학기에는 인국이도 우등생이 될 수 있어. 우리 전체가 인국이의 학습을 돕자꾸나.》

기선이는 이렇게 창휘를 위로했다.

방학이 되자 분단에서는 신천 박물관 견학을 떠났다. 미제에게 아버지를 잃은 인국이가 아버지 원쑤 갚는 마음으로 공부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 온 인국이는 공부를 잘 해서 꼭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리라고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군사 유희요, 축구요 하고 거기에 옴해서 책과 멀리 하던 인국이가 이 결심을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책을 펼쳐 들었다가도 뽈 생각에 정신이 끌려 밖으로 뛰여 나가군 하였다. 이것을 안 분단 위원회에서는 라인균에게 위임해서 항일 빨찌산들과 아동단원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그 가렬한 싸움의 마당에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가를 이야기해 주도록 했다.

어느 날 인국이는 공부하다 말고 축구 생각이 나서 책을 덮고 벌떡 일어 섰다. 그 순간 인균이가 들려 주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오 백룡 선생님은 사격 련습을 하시면서까지도 《가 갸》 《거 겨》 하고 공부하셨다지…)

인국이는 다시 주저 앉아 책을 펼쳤다.

분단에는 가야금 병창조가 조직되였다.

인국이는 차츰 학습에 열성을 내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분단 동무들은 그의 학습을 더욱 꾸준히 도왔다.

6 반 동무들은 인국이의 산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작은 칠판을 만들어 왔고 2 반 동무들은 인국이가 늘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도록 인국이네 집 울안 큰 느티나무 밑에 책상과 의자까지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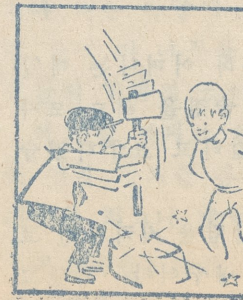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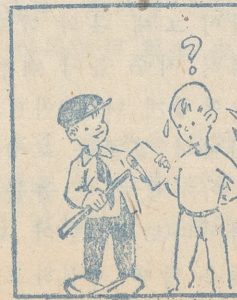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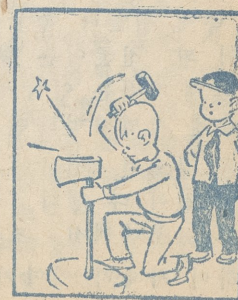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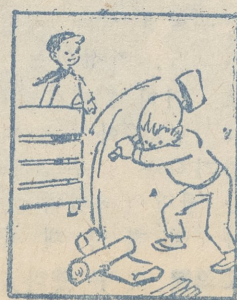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창휘는 인국이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그를 찾아 갔다.

그런데 집이 먼 리 영호가 벌써 와서 그의 자연과 학습을 도와 주고 있었다. 그는 학교의 실험 기구까지 가져다 놓고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인국이는 집단의 방조를 받아 한 학기를 보냈다. 성적증을 받던 날 누군가가 그의 성적증을 빼앗듯 당겨 보더니 《우등이다.》 하고 웨쳤다. 순간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와—하고 환성을 올리며 와르르 달려 나와 인국이를 얼싸 안았다. 인국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지난 11월 어느 날 이들의 교실에서는 두 번째 환성이 울려 나왔다. 그것은 자기 분단에 《모범 분단》 칭호가 수여되였다는 소식을 받고 감격을 누를'길 없어 터져 나온 환성이였다.

개성 지구 개풍군 진봉 협동 농장원 리 동원

그림 현 충섭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지주란 어떤 놈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지주란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원쑤입니다.

25 년간 지주 놈의 집에서 온갖 착취와 멸시를 받아 가며 살아 온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몇 가지를 들어 보십시오.

《팔려 간 어머니》

아홉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몇해 동안 아버지가 소작하던 땅을 부쳐 가며 겨우 살아 갔습니다.

내가 열 두 살 때 일입니다.

지주 최 성민이란 놈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진 빚을 갚지 않았다고 소작 땅을 떼고 어머니와 나를 머슴으로 끌어 갔습니다.

머슴으로 끌려 간 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같이 최 지주 놈에게 머슴질을 해도 모자가 살림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지주놈은 살림을 시키자면 코딱지만한 방 하나라도 내주어야 하겠고 불아궁이도 하나 더 느니 그만큼 나무도 더 들터이니 차라리 어머니를 팔아 넘기고 홀아비 머슴을 하나 더 얻어다 나와 함께 부리는것이 낫겠다고 타산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손을 묶이우고 마차에 실리여 장단군의 장 지주 놈에게 머슴으로 팔려 갔습니다.

어머니가 팔려 간 그 날 밤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주 놈은 나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나에게 마대를 씌운 다음 바'줄로 꽁꽁 묶어서 창고에 집어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돈 없고 땅 없는 사람은 굶주리며 죽도록 일하고도 천대 받고 물건처럼 팔려 가야 하는가? 왜 지주 놈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매일 같이 떡에 고기만 먹고 비단옷 입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그 때 나의 어린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며 지주 놈에 대한 증오로 불탔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머니와 헤여진 후 다시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지주 놈들은 한푼의 돈,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량껏 착취하고 머슴으로 끌어 가고 나중엔 팔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황소 배'속의 《돈》

최 지주 놈은 32 명의 소작인과 정미소, 갖가지 농기구와 다섯 필의 부림소를 가지고 갖은 교활한 방법을 다 써 가며 농민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어느 날 최 지주 놈은 동풍'골에 있는 리 석산이라는 자기 소작인의 소에 우황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하면 그 소를 빼앗아 낼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가놈이 어찌나 그 소에 욕심을 냈던지 어느 날 밤 꿈에는 그 소가 금'덩어리로 된 황소로까지 돼 보였드랍니다.

최가놈은 석산 아저씨를 불러다 놓고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작년 소작료와 빚은 언제 바칠테냐?》

돋보기를 코'등에 걸고 산판을 튕기던 최가놈이 송곳 눈을 치뜨며 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가을에…》

최가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 놈 누가 그런 소릴 듣자느냐, 지금 당장 바치란 말야.》

《지금 당장에 어떻게…》

《그러면 소라도 당장 끌어 와…》

(여우 같은 놈이 우황 든 소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생각한 석산 아저씨는 소만은 절대 못 내놓겠다고 버티였습니다.

그러자 최가놈은 《에익 뻔뻔스러운 도적 같은 놈》 하고 웨쳐대며 튕기던 산판으로 삿대질하듯 석산 아저씨의 턱을 쪼아 댔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울분을 참아 가던 석산 아저씨는 산판을 휙 낚아 챘습니다. 그 바람에 산판이 최가놈의 면상에 부딪쳤습니다.

최가놈은 《이 놈이 사람 친다.》 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그 날 저녁이였습니다.

석산 아저씨네 오막살이 집에는 두 놈의 왜놈 경찰과 최가놈이 달려 들었습니다. 최가놈은 자기와 조금이라도 엇서는 소작인이 있던가, 엇서는 기색만 약간 보여도 왜놈 경찰 서장게 알려서 모조리 가두게 하였습니다.

문을 막 차고 달려든 왜놈 경찰들은 다짜고짜로 석산 아저씨를 묶었고 최가놈은 외양'간에서 소를 풀어 내였습니다.

그 날 밤 최가놈은 밤 깊도록 왜놈 경찰들과 함께 술판을 벌려 놓고 진탕치며 놀아댔습니다.

이렇게 지주란 왜놈게 굽실거리며 나라와 인민을 팔아 먹고, 왜놈은 자기의 충실한 개인 지주 놈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억압 착취할 수 있도록 보호한 다같은 우리 인민의 원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가놈은 석산 아저씨를 잡아 간 왜놈 경찰에게 찹쌀 6 가마니를 실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해 최가놈은 석산 아저씨에게서 빼앗아온 소를 팔아 암소 세 필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최가놈은 농민들을 착취하여 더욱 더 배를 불리여 갔습니다.

지주 놈에게 빼앗긴 나의 귀

나는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 나서 10 개나 되는 아궁에 불을 지펴야 했고 낮이면 산에 가 나무를 해 오고 밤이면 지주 놈들의 발까지 씻어 주어야 하였습니다.

어느날 정미소 하나를 더 차려 놓기 위해 정미 기계를 흥정하려 읍으로 갔던 최가놈이 퍼그나 늦어서야 돌아 왔습니다.

곤드레만드레가 된 최가놈은 대문 밖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치며 머슴들을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논'두렁에 자빠졌댔는지 최가놈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새끼 같았습니다.

옷의 단추는 다 떨어져 나가고 한 손에 벗어 든 조끼는 땅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조끼를 걸어 안고 최가놈을 부축해서 방에 들여다 눕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안채에선 큰 소동이 일어 났습니다.

《돈 돈 …내 돈 1,000 량이 어디 갔니.》

소래기를 지르며 뛰여 다니던 최가놈은 부리나케 우리 머슴들의 방으로 달려 들어 왔습니다.

《요 메추리 같은 놈, 돈을 훔쳤지.》 하며 어떻게나 최가놈이 악을 쓰며 내 멱살을 잡아 조이는지 방금 숨이 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나를 땅에 메치고 사정 없이 차고 밟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매 맞고도 아픔과 분함을 참아 가며 나는 그 날 낮에 창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창고에는 수백 석의 옥백미와 소고기, 돼지고기 장조림을 넣은 독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독 안에서는 고기가 썩고 있었으나 지주 놈은 머슴들에게 고기 한 점 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다 삐뚤어진 독의 뚜껑을 바로 덮는 때였습니다.

《요 생쥐 같은 녀석, 이번엔 고기를 훔쳐 먹느냐.》 하고 최가놈의 마누라가 소리치며 창고 안으로 뛰여 들어 왔습니다.

이 고함 소리에 최가 놈이 안'방에서 씽하고 창고로 뛰여 나오더니 독기 오른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놈이 틀림없이 돈을 훔쳤구나, 이 놈을 당장 죽여 버려야지.》 하며 기둥에 걸려 있는 전정 가위를 벗겨 들자 나의 오른 쪽 귀를 썩 베여 던졌습니다.

나는 《앗》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나의 오른 쪽 귀는 지주 놈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주 놈과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이 악독한 지주 놈들이 미제와 손 잡고 나라를 팔아 먹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부모님들이 걸어 온 피눈물 나는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

☆ ☆

(우화)

여우와 토끼

우봉준

어느 날 간사한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산'기슭을 싸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좀체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산토끼가 곧잘 다니는 길목을 지키려고 그 쪽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그런데 산 모룽이를 돌아 가던 여우는 《덜컥!》 생각지도 않았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캥! 캥!》

여우는 애처롭게 울면서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여우의 곁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여우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사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구 인자하신 산토끼님, 제발 날 좀 구원해 줘요. 난 불행하게도 덫에 치웠다우. 조금만 있으면 난 죽게 될 거야요.

제발 날 좀 구원해 줘요.

난 나를 살려 주신 산토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우리 두 사이가 영원히 화목하리란 걸 보증할 수 있어요, 네 산토끼님!》

산토끼는 덫에 걸린 여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우가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정성껏 도와 주었습니다.

여우의 말마따나 이것을 계기로 두 사이가 화목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 ×

그런데 산토끼의 도움을 받아 덫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우는 방금 자기를 살려 준 은혜는 까맣게 잊고 산토끼에게 시비를 걸며 대들었습니다.

《이 놈, 이 덫으로 말하면 네가 걸리라고 놓은 것인데 신수 사납게 내가 네 대신 걸렸더랬지.

내가 네 놈 때문에 봉변을 당했으니 난 널 가만 둘 수 없다!》

이렇게 으르대면서 여우는 산토끼를 덮치려고 날뛰였습니다.

이 때야 뒤늦게나마 여우의 심'보를 알아 차린 산토끼는 허둥지둥 몸을 피해 우거진 덤불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우는 산토끼가 달아나는 덤불 쪽을 향해 뒤쫓아 갔습니다.

토끼를 잡아 먹을 생각에만 눈이 뒤집혀 발 밑은 살펴 보지도 않고 달려 가던 여우는 《아차!》 두 번째 덫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방금 산토끼가 사라진 덤불 쪽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산토끼님, 산토끼님, 날 살려 줘요.

난 좀 롱을 해 보려고 산토끼님을 놀래운 거지 산토끼님을 해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우!》

※ ※

표리부동한 여우를 풍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우를 동정하고 여우와 화목하게 살아 나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경각성 무딘 산토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가하여 이 우화를 쓴다.

—한 소년단원의 이야기—

박 우 설

이것은 내가 석암 소년단원 야영소에 갔을 때 신의주에서 온 한 소년단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지 나는 지금도 그 동무가 한 이야기를 그 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 ×

나는 가끔 박물관을 찾아 가군 합니다.

내가 너무도 자주 박물관에 드나드는 바람에 우리 분단 동무들은 내가 무슨 큰 연구나 하지 않나 싶어 제멋 대로들 수군거리군 하지요. 동무들은 몇 번, 무엇을 보려 가느냐고 묻군했지만 나는 그 때마다 내 속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비밀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별로 이야기할 것도 못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박물관을 찾아 가는 날이라면 의례히 무슨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가령 분단에서 위임을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라던가, 그 밖에 우리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등이 그거지요. 말하자면 기쁠 때나 행복스러울 때마다 찾아 간 셈이지요.

내가 박물관을 찾아 가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여름 방학이여서 나는 놀음에 그만 정신이 팔려 숙제 공부도 다 집어 치우고 나와 친한 동무인 용술이, 명식이들과 함께 신의주에서 얼마 멀지 않은 룡천에 고기잡이를 떠났다 이틀만에야 집에 돌아 왔습니다. 물론 그 날로 돌아 오려고 작정한 것이 그만 고기가 하두 잘 잡혀 용술이네 외가'집에서 하루'밤을 묵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집에서들은 야단을 쳤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한참 꾸중을 하시더니 무슨 생각에선지 나더러 옷을 가라입으라는 거지요. 나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말 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어깨를 떨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역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앞에서 걸어 가셨습니다.

나는 나 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학교로 간다면 길이 다르고 조용한 공원은 이미 지나고… 정말 모를 일이였습니다.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서 한 자리에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뜻밖에도 박물관으로 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역시 말 없이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나는 차츰 호기심이 나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한 진렬대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속에는 녹 쓴 큰 쇠'덩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과 진렬대 안의 낡고 녹이 낀 둥그런 큰 쇠'덩어리를 번갈아 바라 보았습니다.

《이 쇠'덩이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아버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 것인지를 몰라 덤덤히 선 채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360 키로나 되는 무거운 쇠'덩이다.》

하며 아버지는 그 어떤 쓰라린 기색을 얼굴에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30 년 전 아버지는 이 쇠'덩이로 억울한 〈시험〉을 치렀였지, 내가 열 일곱 살 때 말이다.》

이 말에 나는 자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긴장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1933년이였다고 합니다. 그 때 아버지의 나이는 열 일곱 살이였는데 어찌도 집이 가난하였던지 하루에 죽 한 끼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아버지는 일 년 농사와 소작 부치던 땅까지 몽땅 떼우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습니다. 더는 고향에서 살 수가 없게 되였지요. 그래 할 수 없어 아버지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신의주에 나왔습니다. 막벌이 일이라도 할 셈치고 떠나 왔지만 막상 와 보니 막벌이도 아버지에게는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떼지여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한 달을 보낸 어느 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지 공장의 연공(높은 곳에 올라가 일하는 사람)자리가 하나 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날로 제지 공장으로 달려 갔지요. 공장에는 벌써 숱한 일'군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뜸 여게도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놈 자본가와 감독 놈들이 일'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 보더니 몇 사람을 골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인지 아버지도 뽑히게 되였습니다.

왜놈 자본가와 감독놈들은 몸'집이 크고

튼튼하게 생긴 일'군들을 뽑아 내더니 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 패가 되게 조를 짰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왔다는 젊은 청년과 한 패가 되였습니다.

그 경상도의 청년은 늙은 부모님과 어린 동생 다섯을 먹여 살려야 할 아버지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해 여름 살'길을 찾아 동북으로 들어 가다 려비도 떨어지고 몸도 지쳐 그냥 이곳에 머무르게 된 사람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시험에 뽑히운 아버지와 경상도 사람은 두 번째의 어려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이 두 번째의 시험이 바로 힘을 《시험》하는 쇠'덩이 《시험》이였습니다. 360 키로나 되는 쇠'덩이를 목도로 메고 100 메터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시험》에서 무사히 통과되는 일이란 정말 드문 일이고 거의 전부는 허리를 상하거나 다리를 상하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통과되여 연공이 된다 해도 그들이 받는 돈이란 참으로 보잘 것도 없는 것이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임금은 일본 로동자 하루 임금의 10분의 1인 30 전에서 40 전이였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다 100 키로나 되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높고 위험한 곳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오르내리다간 떨어져 죽거나 병신이 되기가 일수였대요. 그렇지만 어떻걸 수가 없어 로동자들은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 날 아버지는 《스즈끼》라는 일본 감독놈과 그 밖에 숱한 왜놈 감독들의 감시 밑에 《시험》을 치르게 되였습니다.

족제비 수염에 피둥피둥 살이 진 《스즈끼》란 놈이 채찍으로 목도채를 가리키며 아버지와 경상도 사람더러 쇠'덩이를 메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경상도 사람은 재빨리 목도채를 어깨에 들여 대면서 멀고 먼 100 메터 앞 목적지를 노려 보았습니다. 척 보기에는 별로 크지 않은 쇠'덩이여서 아버지는 은근히 자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힘을 주어 일어 서려 하니 쇠'덩이가 어쩌나 무거운지 땅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움쩍도 하지 않드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젖 먹은 힘까지 다 내여 일어 서려 하였으나 원래 경상도 사람보다 힘도 세지 못한데다 키까지 작고 보니 짓눌리워서 좀체로 어깨를 펼 수가 없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앙다물고 일어 서고야 말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버지는 정신 없이 발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시 온 몸에서는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눈 앞은 아찔아찔해졌

습니다. 몸에서는 물 흐르듯 땀이 흘러 내렸고 정신은 자꾸만 가물거렸습니다. 열마를 갔을 때 아버지는 그만 깊은 구렁속으로 들어 가는 느낌과 함께 풀썩 거꾸러지면서 정신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에게 부축되여 일어 섰을 때는 온 천지가 채바퀴처럼 빙빙 돌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감독이 달려 오더니 빨리 메지 않으면 떨구겠다고 울러메더라나요. 아버지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금 목도채를 어깨에 메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집안 식구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이미 힘이 진한 아버지는 다시는 일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눈 앞이 캄캄하여 한 자리에 멍청하니 앉아 있던 아버지의 눈에 문득 쇠'덩이를 달아 맨 목도를 메고 돌아 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른편 사람은 좀 전에 아버지와 같이 목도를 멘 경상도 사람이였습니다. 감독 놈들은 경상도 사람에게 이미 연공으로 일하는 로동자를 붙여 목도를 메게 한 것이였습니다. 경상도 사람의 이마며 목덜미에서는 구슬 땀이 물 흐르듯 흘러 내렸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어 참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 내여 목적지에 돌아 온 순간 그 경상도 사람은 가엾게도 목도채에 깔리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지요. 아버지는 너무도 분하고 안타까와 비틀거리며 경상도 사람에게로 다가 갔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일으키려는데 모여 섰던 로동자들도 모두 달려 와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놈은 재미 있다는 듯 껄껄껄 웃으며 《괘 씸만 하군…》 하고는 사무실 쪽으로 사라져 버리드라는 거예요.

《개 자식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제 배'속만 차리니…》

로동자들 중 나이 듬직한 한 연공이 놈들을 쏘아 보며 성이 나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날 집에 돌아 온 아버지는 이 날 《시험》에서 허리를 상한 탓으로 며칠을 일어나지도 못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여 아버지는 오래도록 허리를 잘 쓰지 못 하였고 지금도 가끔 허리가 쑤셔난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이 날 박물관 진렬대 앞에서 아버지가 들려 준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 지며 자꾸만 샘 솟는 눈물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본가놈들이란 얼마나 악착스럽고 짐승 같은 놈들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박물관을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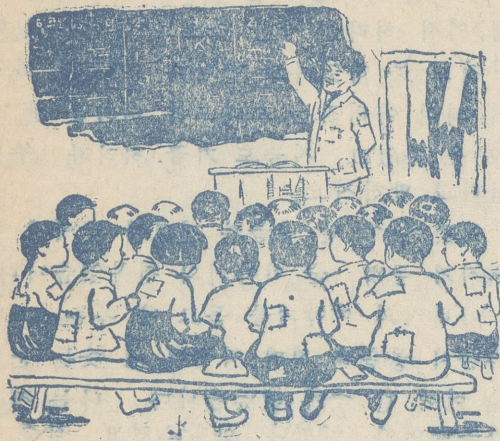
《이자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억울했던 지난 날의 극히 적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이 큰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이다. 이 행복은 수 많은 혁명 투사들과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얻어졌다.》

나는 이 날처럼 나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짬나는 대로 박물관을 찾아 가게 되였고 아버지의 억울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에서,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이 될가 하고 생각해 보군 하였지요. 그리하여 나는 오늘 모범 소년단원이 되였고 우리 행복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꽃 피워 나갈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 ×

이런 이야기를 마친 그 소년단원의 얼굴에는 무한한 행복에 가득차 있었고 다시는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력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기색이 어리는 것이였다.

(남조선 이야기)

맨발로 다니는 60 리'길

—경상북도 신암 《국민 학교》를 찾아서—

동해를 뚫고 줄기차게 솟아 오른 아침 해'살이 태백산 속을 속속들이 비쳐 줄 때면 병풍 같이 깎아 세운듯 솟은 산허리를 타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해쓱한 얼굴에는 또 하루 종일 뗄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꼭두새벽에 집을 나선 이 곳 어린이들은 맨발로 가파른 눈'길을 30 리나 오르내려야 학교에 이릅니다.

이 학교라는 것이 겨우 12 평짜리 초가집 한 채인데 그 한 채도 둘로 갈라서 한 간은 교실로 쓰고 한 간은 선생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생이라야 한 사람 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하나의 길다란 책상과 걸상에서 콩나물처럼 빼곡히 앉아 공부합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부근에 학교라곤 하나 밖에 없어서 이 학교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은 눈 깔린 험한 산'길을 맨발로 톺아 오르고 톺아 내리며 학교에 다닌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데다 이렇게 학교가 멀어서 하루 평균 20~30 명이 결석을 합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더 말이 아니랍니다.

학년 구별은 있으나 교실 하나와 선생 한 명 밖에 없으니 수업을 학년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학년과 3, 4 학년 그리고 5, 6 학년의 세 패로 나누어 한데 앉혀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학년 하나도 똑바로 가르칠 수 없지요.

그러나 무엇무엇 해도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착취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 곳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양말조차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오는 어린이들은 난로도 피우지 못 하는 교실 마루에 걸레를 깔고 그 우에 빨갛게 언 발을 올려 놓은채 몸을 옹크리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내복이란 엄두도 내지 못 하는 그들의 옷차림은 구멍이 성성한 적삼과 바지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 리'길을 걸어 학교에 오고 가는 이들은 점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한 두 명의 어린이가 때로는 점심을 싸 가지고 오는데 그 점심이라는 게 감자 한 알입니다.

《시집 갈 때까지 좁쌀 한 말만 먹으면 호강한 편》이라는 말이 이 고장에서 들릴 정도로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득바득 학교에 다니다가 굶주림을 참을'길 없어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어린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약 10 년 동안에 겨우 16 명의 졸업생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 때문이며 그 앞잡이들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학교 선생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통일되여야 이 어린이들은 마음 놓고 배울 수 있습니다.》

희련이가 보낸 편지

부산시 대연동에 살고 있는 올 해 열 네 살 나는 희련이네 식구들은 집 한 간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착한 이웃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방 한 간을 얻어 언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희련이의 식구는 어머니와 세 오빠, 언니 그리고 자기까지 여섯 식구가 되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이 곳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둘째 오빠 뿐이랍니다.

《국군》에 끌려 나갔던 그의 큰 오빠는 작년 8월에 요행 풀려 나오기는 하였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 하고 있으며 그의 언니도 직물 회사에서 쫓겨 난 후 역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오빠가 벌어 오는 쥐꼬리만한 임금에 여섯 식구의 목을 매고 있는 그의 식구들은 하루 한 끼의 죽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 합니다.

희련이의 어린 가슴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 아무리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학교 문 앞에도 가 볼 수 없는 이 저주로운 남조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의 심장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여 희련이는 대담하게 부산 《시장》이라는 미제 앞잡이놈에게 공개 편지를 들이대였습니다.

당장 자기 오빠와 언니들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며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다닐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련이 혼자의 요구가 아닙니다. 희련이네와 같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600만~750만에 달하는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요구이며 학교에 못 가는 남조선 어린이들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저주하는 목소리입니다.

(동시)

구멍 가게

게딱지 오막집
창문 옆에다
널쪼각 두서너 개
잇대여 놓고
물건이라 몇가지
차려 놓은 게
아쉬운 우리 집
구멍 가게죠

철 없는 내 동생
저기 저 알사탕
하나 먹자면서
어머니 치마'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조를 때면
어머님 애타하며
눈물만 훔치죠

부산 남부민 국민 학교
4의 6 채 현민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에서)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 책을 다 읽고 난 희숙이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길로 이웃에 계시는 창수 할아버지를 찾아 갔다.

《할아버지, 3.1 운동에 참가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 왔어요.》

희숙이는 할아버지 앞에 다가 앉으며 이렇게 청을 했다. 희숙이네 분단에서는 《3.1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던 것이다.

희숙이는 그 모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하기 위해서 3.1 운동에 참가하셨던 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 온 것이다.

희숙이의 청을 받고 난 할아버지는 잠시 한점에 시선을 멈추시고 생각을 더듬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였다.

1910년에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 강도들은 방방곡곡에다 수 많은 헌병, 군대, 경찰들을 늘여 놓고 우리 인민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단다.

왜놈들은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토지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100 여 만 정보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지. 그래서 땅을 떼운 농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였단다.

놈들은 조선의 모든 자원과 공장, 기업소들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것을 만들어 내고 조선 사람들에게 공장, 기업소를 가질 권리를 주지 않았구 장사조차 제대로 못 하게 하였지.

그 놈들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단다. 우리 조선 인민을 자기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말을 못 쓰게 하구 일본말을 억지 다짐으로 배우게 했지. 그 뿐이겠니, 신문, 교과서도 조선말로 내지 못하게 하였지. 그리고 학교 수도 절반이나 줄이고 조선 력사를 가르치는 것까지 금지했다. 그래서 조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악독한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세차게 불타 올랐지. 바로 이러한 때 로씨아에서 일어난 10월 혁명은 우리 인민들을 더욱 힘찬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단다. 드디여 일제 강도놈들에 대한 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이 폭발되고야 말았지.

바로 1919년 3월 1일이였다. 서울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 났단다. 이 날 서울에서는 학생들을 선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시민이 거리로 밀려 나왔지. 시위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가라!》, 《조선 독립 정부를 세우자!》,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와 평등 만세!》 라고 웨치면서 성난 사자와 같이 앞으로 내달았단다.

이 소식은 곧 방방곡곡에 퍼지였지. 그래서 일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조선 인민의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전국적인 독립 시위와 폭동이 일어 났단다. 식칼, 도끼, 쇠스랑, 곡괭이, 호미, 낫, 몽둥이를 들고 떨쳐 나선 인민들은 방방곡곡에서 경찰서, 헌병대, 군청, 면 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왜놈들과 그의 앞잡이놈들을 처단해 버렸지.

일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 세차게 벌어졌단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석달 동안에만도 200 여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투쟁에 참가했구, 12월 말까지는 전 조선 218 개의 부, 군 중 217 개의 부, 군에서 3,200 여 건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 났지.

그렇지만 3.1 운동은 일제놈들의 야수적 탄압과 그 때 아직 우리 나라가 락후했으므로 그를 령도할만한 당이 없었던 탓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3.1 운동에서 조선 인민은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 정신과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이와 함께 3.1 운동은 남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외래 침략자들과 그 주구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옳게 지도할 수 있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하구, 인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3.1의 애국 정신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15 개 성상에 걸치는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구, 오늘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지 않았니!

그런데 해방된지 17 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반부 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일제 대신 기여든 미제놈이 남반부를 자기의 식민지로, 굶주림과 죽음이 휩쓰는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미제는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정희 도당을 시켜 우리 조선 인민의 원쑤인 왜놈들을 또 다시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꾀하고 있다.

지금 미제는 허물어져 가는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어떻거나 유지해 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강화하면서 군사 파쑈 통치를 무한정 연장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놈들의 그 어떠한 발악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꺾을 수는 없다.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 식민지 노예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오직 미제를 몰아 내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가 참가하는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자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단다. 그리고 왜놈들이 다시 남조선에 기여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3.1 운동을 비롯해서 력사의 경험이 보여 주는 것처럼 외국의 힘을 믿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조선 인민들이 한결같이 단결하여 일어 난다면 못 해 낼 일이 없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희숙의 얼굴에는 미제와 일제에 대한 증오와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리라는 굳은 결의가 어려 있었다.

분단 토론회

김 창 룡

소년단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4 차 전원 회의 결정에 따라 매 월 첫번째 화요일과 세번째 화요일에 분단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분단 토론회에서는 매시기 나오는 우리 당의 정책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도덕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토론하며 배우게 됩니다.

분단 토론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흥미 있게 조직할 수 있습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 중학교 제 1 분단 동무들은 자기 분단의 실정에 맞게 분단 토론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도 이 분단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가 3월 중 분단 토론회 제목으로 내놓은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실행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첫 분단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3월 중 분단 사업 계획에다 넣고 분단 토론회 준비를 잘 했습니다. 15 일 전부터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토론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위원들과 반장들에게 분공을 주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의무 조항별로 토론 제목을 분공하기도 하고 열성자들이 그를 맡아 지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분단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공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와 주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분단 벽보 주필 김 정립 동무는 분단 벽보와 속보를 통하여 3월 중 분단 토론회 제목, 날'자, . 시간, 장소 그리고 분단 토론회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토론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리 의원, 류 형일 동무들의 모범도 소개하였습니다.

교마 선동원 채 상록 동무는 동무들의 분단 토론회 준비를 돕기 위하여 모범 소년단인 평북도 창성군 약수 중학교 동무들의 모범과 《조선 소년의 영예상》 수상자들인 문 정숙, 백 광선 동무들의 모범을 스크래프를 만들어 동무들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반장 동무들은 반별로 소년단원의 의무를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 편지와 결부하여 조항별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5 반 반장인 박 영길 동무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반원 5 명에게 소년단원의 의무 조항에 따라 분공을 골고루 주고 지난 날 잘 된 것은 무엇이고 잘 못 된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반 동무들은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대로 실천하는 데서 모범을 보이게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제 5 반 동무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분단 위원회에서는 한 1 주일 앞두고 분단 토론회 준비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분단 토론회의 날이 왔습니다. 분단 내 43 명의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소년단원의 의무 10 가지를 잘 알고 그 대로 실천하는 자랑을 안고 분단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분단 토론회에서는 맨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겠다는 분단 위원장의 말이 있은 다음 분단 지도원 선생님께서 분단 토론회 제목과 그를 배우게 되는 목적 그리고 토론되여야 할 중심 내용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였습니다.

이 날 분단 토론회에서는 소년단원의 의무란 무엇이며 그것을 왜 잘 실천해야 하는가,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실천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이 널리 토론되였습니다.

처음 류 형일 동무가 토론하였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소년단 규정에는 소년단원들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10 가지의 의무가 밝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내용과 결부시키면서 한 조목씩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날 소년단원이면서 소년단원의 의무를 똑똑히 몰랐기 때문에 그 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대로 꼭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이어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모두다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생활해 나갈 자기들의 결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 5 반 반장 박 영길 동무는 소년단의 규정과 의무 대로 자기 반에서 학습과 반 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뒤'이어 고 재홍, 김 영환, 손 승호, 최 병원, 방 정화 동무들이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김 영환 동무는 소년단원의 의무 《O》항을 토론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낡은 습성을 버리고 문명하게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단원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학교와 마을을 깨끗이 꾸리는 것은 응당한 의무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실지 생활과 결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이 날 분단 위원회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이야기로서 끝났습니다.

분단 토론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잘 참가하며 공부 잘 하고 도덕 품성이 바르고 건강한 몸을 가진 여러 모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준비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분단 토론회는 이 밖에도 분단의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민반 소년단원들은 주로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반 분단들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몇 동무에게 미리 준비를 시킨 다음 그들이 중심이 되여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분단 위원회들은 매달 분단 토론회 제목에 따르는 준비와 진행 방법을 분단의 실정에 맞게 잘 선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찰의 이모저모

김 동섭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자연과 우리 주위의 모든 물체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는 매 시각 마찰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마찰이란 서로 닿아 있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일어 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찰이 없는 우리의 생활이란 잠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들의 주위에서 마찰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 해 봅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 갈 수 있는 것은 발과 땅'바닥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과 발'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걸어 나가기 위해 오른 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 때 왼 발은 미끄러져 그만큼 뒤로 밀려 갈 것입니다.

자동차도 전차도 바퀴와 땅 사이 마찰이 없다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찰이 없다면 우리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다니지도 못 할 것입니다.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뜨게 떨어지던 비'방울이 마찰이 없어지면 총알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몇 가지 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찰 현상은 태양 광선이나 물처럼 우리 생활에서 떼여 낼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마찰 현상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리롭게 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생활 경험과 과학 발전을 통하여 마찰이 서로 닿아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복잡한 물리 화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 내였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찰 현상을 유익하게 리용하여 왔습니다.

벌써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하여 마찰의 원리를 알아 가지고 마른 나무'가지들을 맞대고 비벼서 불을 일구어 썼습니다.

동무들이 추운 겨울 날 얼음판에서 뛰여 놀다가 꽁꽁 언 손을 비비면 훈훈해지는 것처럼 물체와 물체를 마찰시키면 열이 나며 불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마찰을 시키면 물체가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도끼나 칼, 창 같은 생산 도구를 만들 때 숫돌에 갈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 마찰은 기술 발전에 아주 널리 리용되고 있습니다.

기차나 자동차가 달려 가다가 멈추려고 할 때에는 바퀴에다가 제동변이라는 부속품을 꼭 대고 누릅니다. 그러면 바퀴와 제동변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기차나 자동차는 곧 멎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는 기중기, 선반 등 많은 기계들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힘을 전달하는 데도 마찰 현상을 많이 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 가는 전동기의 힘을 기계에 전달하는 피대 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찰 현상이 언제나 우리 생활에 리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아주 해롭기도 한 것입니다.

동무들은 자동차가 달릴 때에 발동기가 돌아 가며 내는 힘이 어디에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때 발동기가 내는 힘의 70프로 이상이 공기와 자동차 사이에 일어 나는 마찰 즉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공기의 저항이 가장 적게 일어 나도록 미끈한 류선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적은 발동기를 가지고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 다니는 새나 물 속을 헤여 다니는 물'고기의 몸체도 공기나 물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앞뒤가 뾰족하고 미끈하게 생긴 것입니다.

마찰은 또한 기계 부속품이 닳아서 못 쓰게 만들며 마찰이 심한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져서 부분품을 타버리게 하거나 기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이런 마찰은 될 수록 적게 또는 일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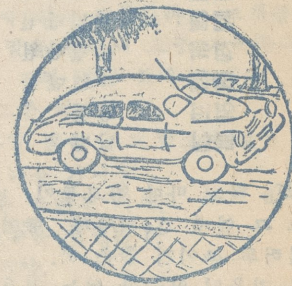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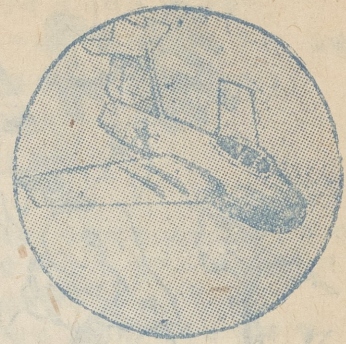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그럼 다음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어째서 썰매를 얼음판 우에서 끌때는 쉬우나 땅'바닥 우에서 끌자면 힘이 듭니까?

둘째, 공기와의 마찰이 가장 적게 생기도록 하자면 비행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합니까? 한 번 종이에다가 그려 보십시오.

세째, 동무들의 주위에서 일어 나고 있는 마찰 현상 가운데서 우리 생활에 어떤 것이 리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해로운 마찰을 어떻게 적게 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 복 선

그림 최 순천

나오는 사람

상용	소년단 반장
세찬	소년단원
룡일	소년단원
경욱	소년단원
국철	소년단원
영녀	당번
복실	당번

무대 학교 마당 한모퉁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그 옆에 긴 의자가 놓여 있다. 소년들의 모임터로 쓰이기 좋은 곳.

봄 기운이 아늑한 어느 일요일 오후.

△ 소년들의 떠들썩한 소리 들리더니 상용, 경욱, 국철 등 소년단원 한 떼가 뽈을 치며 뛰여 나온다. 새하얀 덧깃에 반듯하게 맨 붉은 넥타이 등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다.

상용 야! 당번 선 동무들 꽤두 깐깐히 보는구나, 수첩을 내놓구서 조항 대로 따져 가면서 말야.

국철 아무리 따져 봐두 인젠 자신 있네. 자 봐, 어디 걸릴 데가 있는가?

경욱 그거야 물론 우리 분단이 언제나 1 등이지머.

상용 됐어, 그러니까 오늘은 축구에서도 어떻거든지 마촌 부락을 지워 넘겨야 해.

국철 문제 없어.

경욱 그렇지만 마촌 부락 공격수랑, 문지기랑 얼마나 쎈지 아니?

국철 일 없어. 내가 있잖니, 내가!

경욱 요전 번 시합 때 맥두 못 추구서 큰 소리니.

국철 체! 그 땐 저… (말문이 막힌듯) 원숭이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니?

모두 하하…

상용 미리부터 떨 건 없어, 작전 계획을 잘 짜면 돼.

경욱 오늘 세찬이만 나왔으면 그까짓 마촌 애들쯤은… 얘들아! 지금이라두 가서 세찬이를 데려 올가?

상용 그만 둬! 앓는 아이가 어떻게 축구를 하겠니.

경욱 뭐 우리 유동 부락을 위해서 감기쯤은 참구 나올 수도 있잖니.

상용 글쎄, 그만 두라니까 어제 가 보니까 누워 있던데.

경욱 그래?!

상용 오늘 문지기는 경욱이가 서는 것 알지?

경욱 난 자신 없어.

국철 뭘 그래? 자! (뽈을 척 던진다.)

경욱 (엉겁결에 날아 온 뽈을 솜씨 있게 잡는다.)

상용 (몹시 만족한 듯) 좋아! 됐어.

국철 꼬마라두 아주 매운 고추거던.

경욱 체, 비행기 태우지 말어.

국철 아냐 정말이야.

△ 이 때 가까이에서 소리.

《야! 세찬이가 온다!》

모두 (놀라며 소리 나는 쪽을 본다) 뭐! 세찬이가?

△ 모두 기뻐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맞받아 나간다. 잠시 후 세찬이가 동무들에게 둘러 싸여 온다. 뒤따라 룡일이도 온다.

상용 야! 세찬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 인젠 다 나았니?

세찬 다 나았어, 너희들 날 빼놓구 축구 시합할래댔지?

상용 네가 앓길래 그랬지.

세찬 그까짓 감기쯤 뭘…

경욱 (상용에게) 그것 봐, 그러게 내가 뭐랬니? 세찬아, 그렇지 않아두 널 부르러 가려구 했어.

국철 그래 어떻게 알구 나왔니?

세찬 다 아는 수가 있지, 내가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걸 모를가.

룡일 글쎄, 내가 오는 길에 들려서 축구 시합이 있다구 했더니 벌떡 일어나 달려 오지 않겠니?

경욱 야! 정말 잘 왔어.

상용 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세찬 걱정 말라는데두.

상용 얘! 그런데 너 그 옷차림이 뭐가?

세찬 뭐 옷차림? (자기 아래 우를 훑어 보며 옷매무시를 바로 잡는다.)

상용 오늘 시합엔 옷차림을 단정히 안한 동무는 참가시키지 않기루 결정했어.

세찬 뽈을 차는데 교복을 입고 차니?

상용 옷차림을 검열하구 통과되면 운동복으루 바꿔 입는단 말야.

세찬 거 뭐 까다롭구나.

상용 (세찬이의 옷차림을 살펴 본다.) 단추는 어데서 이런 걸 달구 왔니? 운동화끈은 또 어떻게 하구?

세찬 누이 동생 보구 좀 달아 달라구 했더니 이따위 단추를 달았구나!

룡일 하하…곱대라구 이런 푸른 단추를 단 모양이야.

세찬 내 참 한심해서.

국철 한심한 건 너지 뭐야, 요전 날 분단 모임에서 뭐라구 토론했니? 그만큼 옷차림에 대해서 주의하자는데 누이 동생에게 맡겨 놓으면 되니?

상용 이 덧깃두 갈아야겠다야, 그리구 넥타이두 다 구겨지구, 이게 뭐야. 어디 거울, 빗, 손'수건은 있니?

세찬 오늘은 일요일인데 누가 검열할 줄 알았니.

국철 넌 바루 그 머리를 고쳐야 해. 검열 때만 갖추구 다니는 건 뭐야, 그래 갖구 축구 시합에 참가하긴 다 틀렸어.

세찬 원 참 축구하구 옷차림하구 무슨 상관이 있다구. (뽈을 치며 뛰여 나간다.)

△ 룡일이도 따라 나간다.

경욱 좋은 수가 있어.

모두 뭔데?

경욱 검열할 때는 세찬이를 빼놓구 운동복 갈아 입고 나갈 때 슬쩍 데리고 나가면 어때?

상용 그렇게 속여서는 안 돼.

경욱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하자는 건데 뭘…

상용 안 된다는데, 분단에서 결정한 대루 해야 해.

경욱 그렇지만 시간두 없구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잖니.

국철 세찬인 한 번 정신 들게 이번 시합에서 빼는게 어때? 옷차림을 단정히 하자구 그만큼 토론했는데 며칠 지나면 저 모양이니 말야.

경욱 오늘이야 몰라서 그러구 왔지 뭐.

국철 일상적으로 잘 한다면 그럴 리 있니?

상용 쉬—, 좋은 수가 있어 내 말 좀 들어.

모두 뭔데?

△ 상용 귀'속 말로 속삭인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더니 모두 기뻐한다.

국철 그래 됐어, 그럼 빨리 갔다 오기다.

△ 소년들 모두 퇴장한다.

△ 세찬, 룡일 뽈을 주고 받으며 들어 온다.

세찬 저 애들 어디를 가니?

룡일 준비 운동을 하려는 거지.

세찬 정말 날 빼놓을 셈인가?

룡일 아마 그런거야.

세찬 씨, 좋아! 그런데 넌 왜 그런 소릴 일러주지 않았댔니 참.

룡일 어디 그런 말을 할 사이가 있었니, 축구 시

합이란 말을 하기가 바쁘게 덤비며 뛰여 나오구선! 넌 한 번 단단히 혼나 봐야 해.

세찬 야! 너까지 그러기냐?

룡일 안 그러게 됐니? 이게 무슨 꼴이람, 옷차림이 단정치 못 해서 축구를 못 하게 된다구야…

세찬 참 녹작해서!

△ 당번 완장을 두른 영녀, 복실이가 온다.

세찬, 룡일 당황하여 얼굴을 마주 본다.

영녀 동무들, 검열 왔어요.

세찬 뭐?

복실 소지품을 봅시다.

△ 세찬이 주머니를 들추며 더욱 당황해 한다.

룡일 (주머니에서 거울, 빗, 손'수건을 꺼내 보인다.)

영녀 (룡일에게) 동무는 됐어요. (세찬에게) 동무는?

세찬 오늘은 운동하러 나오느라구…

영녀 운동하러 나와두 외모를 단정히 하구 다녀야지 않아요.

세찬 오늘은 일요일인데 머.

복실 동무네 분단에선 일요일엔 외모를 단정히 하지 않기루 했어요.

세찬 그런 게 아니라…

영녀 이것 봐 넥타이두 구겨졌지, 덧깃두 갈아야겠구 운동화끈은?

복실 10 분단이지요?

세찬 …

영녀 참 10 분단은 외모 단정에서 아주 모범이라구 칭찬했더니 이런 동무가 있었구나.

△ 세찬이 몹시 면구해서 어쩔 바를 모라 서 있는데 상용, 경욱 숨 가쁘게 뛰여 온다.

상용 (모두 눈치를 알아 차리고 가지고 온 넥타이, 덧깃을 내 준다.) 자! 당번 동무들 우리 세찬 동무것 여기 있어.

영녀 (의아해서 상용이를 본다.) 이건 뭐냐?

상용 깨물을 걸 없어, 자 내가 달아 줄 게 웃옷을 벗어!

세찬 (면구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웃옷을 벗는다.)

영녀 (주머니에서 바늘과 실패를 꺼내 든다.) 이리 줘, 내가 달아 줄 게.

세찬 (뒤통수를 긁는다.)

영녀 (덧깃을 단다.)

△ 이 때 국철이 뛰여 온다.

국철 (눈치 채고 거울과 빗을 슬며시 세찬에게 준다)

복실 (자기 주머니에서 단추를 꺼내 주며) 자, 이 단추 바꿔 달아. (영녀에게 준다.)

세찬 (더욱 면구해 한다.)

경욱 (단추를 내주며) 자, 여기 있다.

복실 너희들은 모두 협동 작전이구나.

국철 우리 10 분단은 100프로 5 점. 그렇지? 수첩에 지적해서 적어 넣었거들랑 당장 지워라.

모두 (웃는다.)

영녀 어디! 아직두 틀렸어, 운동화끈은?

상용 으응 그것! (노래조로.)

《노끈아—어디 있느냐? 요기 있다 요기 있다 나 요기 있다》자.

(주머니에서 노끈을 꺼내여 준다.)

모두 (웃는다.)

룡일 (세찬이와 함께 운동화끈을 낀다.)

국철 자! 어때?

영녀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협동 작전하는건 진짜 5 점이 될 수 없어.

복실 요 다음부터는 검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단정히 갖추도록 부탁해.

국철 네! 알았습니다. (우스개로 차렷하며)

△ 영녀, 복실 퇴장한다.

세찬 야! 참, 땀뺐네. 너희들 아니였더면 혼날 번 했어.

국철 그것 봐 검열을 위해서만 하다가는 망신하는거야.

상용 세찬인 오늘 축구 시합에서 특별히 잘 싸워야 해.

세찬 정말 미안해. 인제부터는 언제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잘 싸우겠습니다.

(우정 차렷 자세를 하고 소년단 경례를 해 보인다.)

상용 됐어, 세찬 동무는 언제나 의복을 단정히 할 것. (역시 소년단 경례를 하고 군대식으로 말한다.)

세찬 알았습니다.

모두 (명랑하게 웃는다)

△ 호각 소리가 울려온다.

상용 정렬!

△ 모두 한 줄로 정렬한다.

상용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란이 선 동무들을 둘러 보며 만족한듯 미소 짓는다.) 차렷! 앞으로—갓!

△ 소년들 발'걸음도 높이 씩씩하게 노래 부르며 나가는 데 막—

꼬마 진료소

눈'병 이야기

어느 날 꼬마 진료소의 꼬마 의사는 18 분단의 김 호일이가 눈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찾아 가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부어 올랐고 눈'곱이 끼여 있었습니다.

꼬마 의사는 곧 집사경을 이마에 걸고 눈을 진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꼬마 의사—언제부터 눈을 앓니?

호일—사흘 전부터야, 처음엔 흰자위가 벌겋게 되지고 깔끔깔끔 하더니 차츰 눈이 가려워나두나. 그래서 손'등으로 자꾸 비볐더니 더 아파나고 눈'잔등이 부어 오르면서 눈'곱이 더 많이 끼기 시작하더라.

꼬마 의사—너 돌림눈(류행성 결막염)에 걸렸구나. 그런데 왜 오늘까지 가만 있었니, 그냥 두면 시력을 못 쓰게 만들 수 있어.

호일—그런데 머리가 자꾸만 무겁고 눈물이 나오면서 밖에 나서기만 하면 눈이 부신데 그건 왜 그렇니?

꼬마 의사—그건 돌림눈이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돌림눈은 보통 봄철인 4~5월과 가을철인 9~10월에 잘 생기는 눈 전염병이란다. 그것은 이 시기에 눈'병을 전염시키는 소간균이라는 병균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란다.

호일—어떻게 되면 돌림눈에 걸리니?

꼬마 의사—돌림눈이라는 것은 소간균이 눈에 들어 가서 눈 거풀 안과 흰자위 표면을 덮고 있는 엷은 막에 갑자기 염증(부스럼)이 생기는 병이란다.

우리들의 눈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소간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균들이 많단다. 그런데 소간균은 일상적으로 체육을 하지 않고 개인 위생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몸이 약해지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거나 무리를 해서 눈이 몹시 피로했을 때면 때가 왔다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눈'병을 일으킨단다.

그리고 돌림눈을 앓는 사람이 쓰던 물건을 나누어 써도 걸리게 된단다.

돌림눈에 걸리면 눈'곱이 나오는데 그것은 눈꺼풀 안과 흰자위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이 헐면서 나오는 고름이란다. (눈을 앓지 않는 보통 때 나오는 눈'곱은 눈 안에 들어 간 먼지와 티가 한데 엉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눈을 앓을 때 자주 비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피부에 난 종처(헌데)를 가렵다고 자꾸 긁어서 종처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돌림눈이 심해지면 검은 자위에 흰태가 끼며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단다.

곁에서 꼬마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무들이 다른 눈'병은 없는가고 물어 보았습니다.

꼬마 의사—눈 전염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도 걸리기 쉬운 것이 돌림눈과 트라코마(만성 결막염)란다. 트라코마는 돌림눈과는 달리 비루스라는 균에 의하여 전염된단다.

이 병도 몸이 약해지거나 눈 위생을 지키지 않을 때 걸리게 된다.

트라코마도 돌림눈처럼 눈 안의 얇은 막이 허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 나면 눈이 시그럽고 안개 낀 것처럼 침침하며 눈'곱이 약간씩 나오는데 오후가 되면 돌림눈처럼 눈이 좀 가렵단다. 그래서 자기가 트라코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를 수 있단다.

그러므로 봄과 가을철에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단다.

트라코마를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차츰 시력을 잃고 만단다.

호일—눈'병에 안 걸리게 예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니?

꼬마 의사—신체를 단련하고 일상적으로 눈에 대한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티나 먼지가 들어 가지 않게 해야 하며 특히 어지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손에 소간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균들이 수 없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침, 점심, 저녁에는 꼭꼭 세수를 하며 항상 눈 언저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건, 세수대야를 비롯하여 눈'병을 앓는 사람의 물건을 절대로 나누어 쓰지 말아야 해.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은 참으로 중요하단다. 때문에 우리 모두 항상 눈을 깨끗이 하여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

(작문)

우리마을 협동'벌

우리 마을 협동'벌은 저 멀리 아득히 뻗어 나간 재령 평야와 잇닿아 있답니다.

무연한 들에는 아지가 친 파란 탱상모가 해마다 키돋움하며 싱싱히 자라고 있지요. 넓은 협동'벌에는 여기저기에서 협동 농장원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지난해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쟁취한 협동 농장원들은 올해에 2중 천리마 작업반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요. 대풍작을 거둔 지난해보다 더 큰 풍작을 위하여 막 성수가 나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부터 봄을 앞당겨 얼음이 언 논에 자급 비료를 듬뿍듬뿍 내였답니다. 관개수 철철 흘러 넘치며 기계로 발갈고, 씨 뿌리고, 약으로 김매는 우리 협동'벌에 올해 또 대풍년이 올 것은 뻔 하지요. 그러니 모두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 입고 살게 되였지요.

그러나 이 들판에 늘 이렇게 벼가 싱싱 자라고 살림이 흥겨웠던 것은 아니였답니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둥지를 틀고 있었을 때 농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였답니다. 아무리 일해도 벼는 싱싱히 자랄 줄 모르고 노랗게만 되였대요. 그렇게나마 가꾸어 가을에 탈곡을 하면 왜놈들이 욱—달려 들어 빼앗아 갔고 지주놈이 새벽부터 달려 들어 소작료를 내라, 비료 값을 내라, 물세를 내라, 봄에 꾸어다 먹은 쌀을 내라, 소 부린 값을 내라, 돈 꾸어다 쓴 것을 내라…하면서 몽땅 빼앗아 갔대요.

사철을 피땀 흘리며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하여도 자식들에게 이밥 한 그릇 먹여 보지 못하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목숨을 이어 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고 눈물겨운 생활이였겠어요.

생활에 쪼들리고 쪼들리다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 간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때 이런 노래까지 불리워졌대요.

《……문전의 옥답은 어디로 가고
쪽나리 보'짐과 쪽박 신세가 웬 말이냐……》

농장원들은 지금도 그 때 헐벗고 굶주리던 생각을 하면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가 더욱 더 고마와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원들은 당이 호소한 알곡 500 만 톤 고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지요.

이렇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농장원들은 승냥이 미제와 거머리 같은 지주놈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잊을 수 없대요.

오늘도 농장원들은 남녘땅에서 미제놈들을 몰아 내고 통일된 사회주의 지상 락원에서 남북조선 인민이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듬뿍듬뿍 두엄을 내고 청성 담아 씨를 뿌린답니다.

황남도 신천군 백석 중학교
3 학년 림 두섭

(동요)

꽃씨 심어요

아지랑이 아물아물 봄'바람 솔솔
따사로운 봄날에 꽃씨 심어요.

협동 마을 한복판 곧추 뻗은 행길'
가에
소년단원 우리들은 꽃씨 심어요.

날마다 젊어 가는 문화 주택 새
거리
여름이면 울긋불긋 꽃거리 되겠
죠.

꽃처럼 피여나는 행복한 새 살림
아롱아롱 수놓으며 꽃씨 심어요

황해남도 벽성군 벽성 중학교
1 학년 김 연숙

(동시)

아침 마다

칠학산 련봉에 아침 해'님 웃
기 전
내 동생 복남이 새벽잠 깨기 전
나는요 언제나 잊지 않아요.

원수님이 주신 교복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
언제나 곱게곱게 다림질하죠.

그러면 붉은 넥타이처럼
우리의 마음 붉어지고요
교복 치마 칼주름에 나는듯 즐겁
지요.

학교 갈 땐 벙긋벙긋 아침 해'님
웃고요
김 일성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
언제나 우리의 온 몸에 넘쳐요.

평북도 운전군 운하 중학교
3 학년 문 길선

전 호의 간단한 내용

초란이는 길동을 죽일 계획을 꾸미였습니다. 초란이는 칼 잘 쓰기로 이름난 특재를 재물로 매수하여 길동이 방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 차린 길동이는 재주를 피워 특재란놈을 깊은 산 속에 몰아 넣고 항복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재란 놈은 재물을 탐내서 항복하지 않고 길동이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길동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특재를 없애 치우고 홍 판서와 어머니 앞에서 초란이의 흉계를 폭로하고 더는 천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홍길동 〔제3회〕

신구현

㉕ 어머니를 리별하고 문을 나선 길동이는 정처 없이 남쪽을 향하여 발'길을 내디디였습니다.

속히 돌아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우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속히 만나자면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용기가 절로 솟고 발'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였습니다. 하루에 백 여 리는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㉖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갈림'길에서 길동이는 십 여 명의 굶주린 류랑민을 만났습니다.

주리고 지칠 대로 지친 류랑민들은 금시에 쓰러질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길동이는 백발이 성성한 로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가시나이까?》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로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㉗ 몹시 지치고 시장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길동이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미시'가루를 듬뿍 덜어서 《시장하실텐데 요기나 좀 하시고 가세요.》 하고 로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본 굶주린 류랑민들은 와! 하고 모여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잔치가 길'가에서 벌어졌습니다.

㉘ 로인은 물에 탄 미시'가루를 한 머집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뉘 댁 도령님인지 참으로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하고 한숨을 후 하고 내쉬였습니다.

《년세도 많으신데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길동이는 다시 로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식구들이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이요. 살'길을 찾아 지리산으로 가는 게요.》

㉙ 길동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곳도 많을 터인데 하필 지리산으로 가시나이까?》

로인은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하는 것입니다.

《짚신도 제날이 좋다구 고향 사람들을 찾아 가는 게요.》

《그럼 지리산이 본시 고향이나이까?》

《아니요. 지리산에는 도화동이라는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데 고향 친구들이 먼저 그 곳을 찾아 많이들 떠났소.》

길동이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리산으로 가자!》

㉚ 길동이는 미시'가루를 몽땅 로인께 주고 작별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지리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찾아 오셔야 합니다.》 하고 길동이가 조화를 부리니 바람을 타고 멍석이 떠 왔습니다.

멍석을 타고 다시 조화를 부리니 바람에 멍석이 높이 뜨며 번개같이 하늘을 가르고 달리는 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 길동의 쟁쟁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 왔습니다.

로인을 비롯한 류랑민들은 손을 저었습니다.

㉛ 길동이는 삽시간에 지리산 상공에 이르렀습니다. 지리산이 한 눈에 안겨 왔습니다.

골짜기에 난 산'길이 눈에 띄였습니다.

《옳지! 길이 있으니 사람 사는 집이 있을 것이다. 거기엔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불쌍한 백성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

㉜ 길동이가 산 중턱에 내리여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절벽이 앞을 막아 섰습니다.

그 절벽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힘을 내여 돌문을 가만히 열고 들여다 보니 넓은 들이 있고 들 복판에는 수 백호 기와집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복숭아꽃, 사과꽃이 한창이였습니다.

《도화동, 도화동이다!》

길동이는 손'벽을 쳤습니다.

㉝ 도화동에 들어 서니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집들은 꼭 같은 모양이였습니다.

도화동에 들어서 한 집엘 다달으니 대문이 굳이 닫혀 있는데 안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했습니다.

길동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 갔습니다.

아주 넓은 마당인데 우락부락 건장하게 생긴 사람들이 멍석 우에 빼곡히 앉아서 무엇인가 열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들어 서자 그들의 시선은 길동에게로 쏠렸습니다.

㉞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왔느냐?》

《나는 서울 홍 판서 첩의 자식 길동인데 천대를 받지 않으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이 곳으로 발'길이 미침을 아뢰오.》

《돌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 온 걸 보니 그대 심상치 않은 인물이로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여 온 영웅 호걸들인데 대장을 정하지 못 했으니 그대 저 돌을 들어 보라!》

돌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였습니다.

㉟ 길동이는 수 많은 영웅 호걸 가운데서 이 돌을 든 이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길동은 단숨에 그 돌을 번쩍 들어서 담장 너머로 내던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다 혀를 빼 물고 《과연 장수로군! 우리를 위해 하늘이 낸 대장이군!》 하고 수군덕거렸습니다.

㊱ 영웅 호걸들은 길동이를 맨 웃자리에 앉히고 그 명령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길동이는 대장으로 되였습니다.

대장이 된 길동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힘만으로는 반드시 싸워 이긴다고 말할 수 없소. 우리는 항상 나라와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하오. 우리는 슬기로와야 하며 항상 용감스러워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는 배우고 무예를 닦기에 힘써야 하오…》

㊲ 도화동 영웅 호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길동이의 지도 하에 매일 무술을 닦기에 힘썼습니다.

을지 문덕, 김 유신,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의 병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화동 영웅 호걸들은 애국적이고 슬기롭고 용감한 사람들로 변하여 갔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3호 현상 문제

수남이에게 쇠 빠이프를 강 건너까지 운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남이는 쇠 빠이프를 배에다 싣고 올라 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막 가라 앉으려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 수남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찬찬히 궁리한 끝에 배에 올라 타고 곧 건느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가요?

〈흥미 있는 봄철 유희〉

《미군》 잡기

박 재 봉

1. 준비할 것

ㄱ. 인원 수에 따라서 4각형 또는 구형으로 선을 그어 유희장을 만든다. 한 학급 정도 인원이면 25 m 4 각형을 긋는다.

ㄴ. 4각형 네 구석에 1.5 m 정도의 반원을 그어 피하기 소굴로 정한다.

2. 유희 조직

ㄱ. 같은 인원수로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붉은 기 중대, 한 편은 《미군》이 된다.

ㄴ. 붉은 기 중대는 6 명씩 한 조로 하여 서로 손을 잡는다.

ㄷ. 두 편은 전체가 유희장에 들어 가 자유로이 서 있는다.

3. 노는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붉은기 중대의 각 조는《미군》을 좇아 가서 서로 손을 잡은 채《미군》을 가두게 되면《미군》은 잡히운 것으로 되여 밖으로 나가야 한다.

ㄴ. 붉은 기 중대 조원들이 한 쪽 선에 반원으로 마주 서서 《미군》을 가두었을 때에도 《미군》은 잡히운 것으로 된다.

ㄷ. 또한 《미군》이 좇기다가 선 밖으로 나가도 잡히운 것으로 된다.

ㄹ. 붉은기 중대의 2~3개 조가 서로 련합되여 손을 잡고 《미군》을 몰아 낼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군이 빨리 피해 다니므로 잡기 힘들 때 자유로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하여 각 조별로《미군》을 잡는 것이 흥미 있다.

ㅁ. 《미군》은 좇겨 다니다가 유희장의 네 구석에 있는 피하기 소굴에 들어 갈 수 있다. 피하기 소굴에는 몇 명이라도 들어 갈 수 있다.

ㅂ. 붉은 기 중대 각조들이 《미군》을 다 몰아 낸 다음에는 두 편이 교대하여 다시 유희를 시작한다.

4.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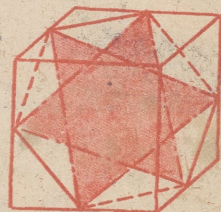
ㄱ. 유희 중에 붉은기 중대 각 조원들은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되며 손으로《미군》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포위해야 한다.

ㄴ. 몰려 나간《미군》은 유희장 안에 다시 들어 올 수 없다.

ㄷ. 피하기소굴에 들어 간《미군》은 일시 피하였다가 인차 유희장에 나와야 한다.

☆ 《나누어 보세요》의 해답

1 호 현상 문제 해답

그림과 같이 쪼개면 베여 낸 면이 정 6각형으로 된다.

1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시 상흥 중학교 최 홍식
평북도 녕변군 오봉 중학교 길 기순
평북도 곽산군 월옥 중학교 리 영춘
자강도 장강군 장평 중학교 안 혜숙
황북도 순안군 좌위 중학교 강 예분
황북도 봉산군 구읍 중학교 원 정순
량강도 갑산군 동점 중학교 박 경후

누가 먼저 베여 낼가?

아래의 그림을 여섯 토막으로 베여 내는데 베여 낸 모양이 꼭 같고 그 안의 수'자들의 합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베면 될가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소년단》1963년 제 3 호 (총161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139
값 25 전

역삼을 많이 심자!

역삼은 공업 원료로 될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역삼으로는 천, 식용유(기름) 비누, 약품, 바'줄 고기 그물등을 만들며 가축 사료로도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십시요)

때문에 우리들은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를 더 잘하여 역삼을 많이 심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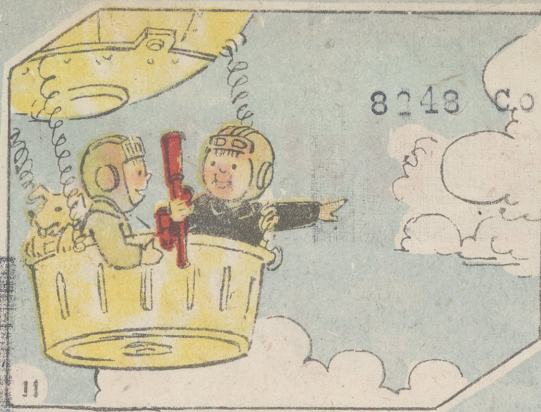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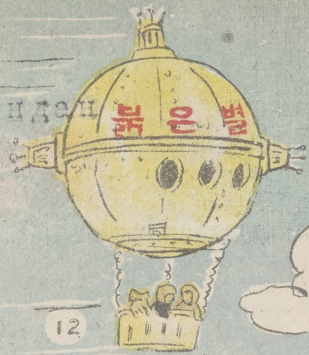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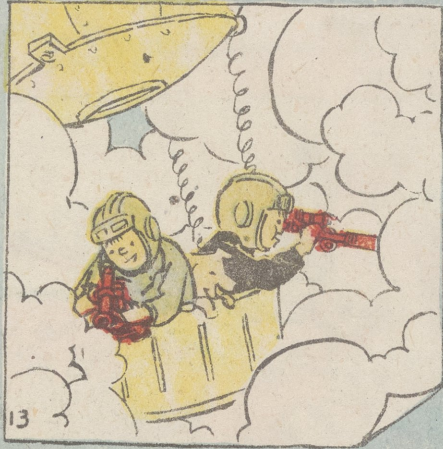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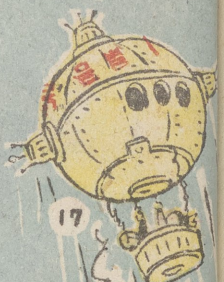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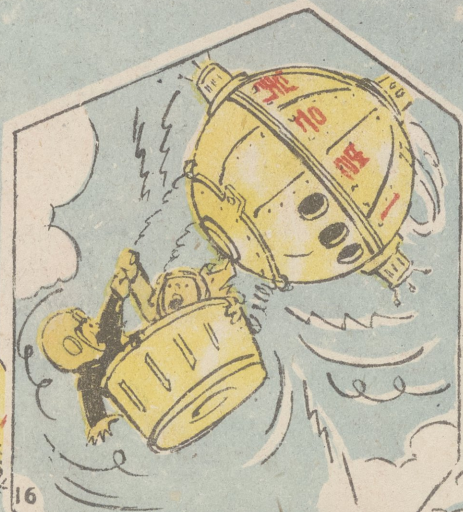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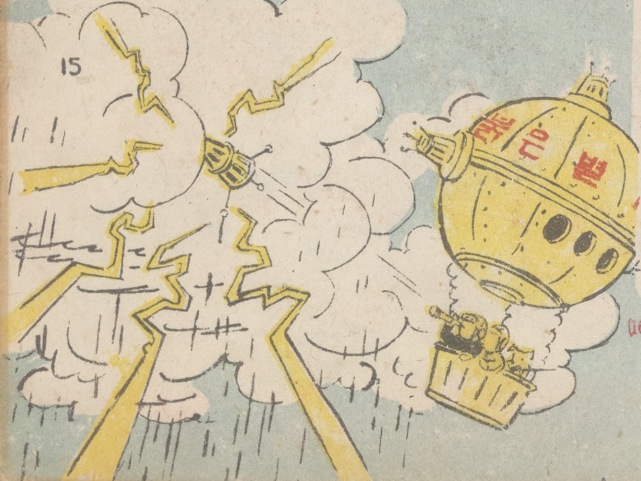
☆ 역삼 가꾸는 법

싹이 나와 5~6일 지난 후 첫 김을 매면서 한포기에 4~5대씩 남겨 두고 솎아 주어야합니다. 역삼의 키가 10~15㎝ 정도 되였을 때 다시 김을 매면서 한포기에 2~3대씩 남겨 두고 나머지는 솎아 줍니다.

비료는 7~8월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로서는 류안 비료 인분등이 좋습니다.

☆ 역삼 심는 법

역삼은 땅이 습하지 않는 도로 주변, 밭뚝, 제방뚝, 집과 학교 주변등 공한지에다 심습니다.

먼저 구덩이(깊이 20㎝ 너비 30㎝ 정도) 를 판후 퇴비 1~2㎏ 정도 넣고 보드러운 흙을 약간 덮은 후에 씨를 5~6알씩 넣고 3~4㎝정도의 흙을 덮어 줍니다.

과학환상 만화
붉은별
(11) 멀리에 커다란 구름덩이들이 보인다.
철웅—저 구름속에 들어가 볼가?
용남—그래.
(12) 좌측 로켓트 추진기가 움직인다 기구는 같은 고도에서 우측으로 비행한다.
용남—구름 속은 어떻게 생겼을가.
철웅—신기할거야.
(13) 구름속에 들어간 그들
전자 망원경과 전자 현
경으로 관측을 진행한
전자 계산기는 그들이
측한 것을 계산해준다.
용남—야 안개 속과 길
앞이 캄캄 하구나.
철웅—그럼. 구름이라는
작은 물방울인걸 머 지
우린 1000톤이나 되는
덩어리 속에 들어와 있
말이야.
용남—뭐, 1000톤?!
철웅—고걸가지구, 3000
톤이나 되는 구름도 많
(14) 먼 곳에 있는 검은 구름에서 번개가 일며 소낙비가 내린다.
용남—야, 번개가 친다야 이러다가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하니 빨리 방향을 돌리자.
철웅—걱정할건 없어 번개를 막을 장치가 다 되여 있어 번개를 무서워할 대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리롭게 쓸줄 알아야해.
용남—옳아 번개가 일때마다 많은 질소가 생겨난다고 했지.
(15) 그들은 번개 유도 장치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번개치는 구름 속으로 띄워 보낸다. 그리하여 번개를 많이 치게 한다.
철웅—우리가 만든 《번개 유도 장치》는 번개를 저렇게 자꾸 일게 할 수 있거든.
용남—그러면 그만큼 질소가 많이 섞인 비가 내리겠지.
(16) 그들의 머리 우에 큰 구름덩이가 지나간다.
용남—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거릴가?
철웅—모르겠는데?!
용남—이걸 어쩌나?
기구가 갑자기 사방으로 요동치기 시작한다.
(17)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
을 잃고 하늘 높이 올
라간다.
철웅—용남—앗!
철웅이와 용남이는
어떻게 되였을가요?